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진지) ● 본필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마음 한번 돌리면 흥겹게 살 수 있어

아이들 걱정돼 다시 살지만

문 저는 올해 36살의 가정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집사람이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고 전화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싸우기도 무척 싸웠습니다. 그 당시의 제가 하는 사업이 어려울 때였고,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저는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다른 일로 구치소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쫓겨나 돌아오는 식으로 살아오다 아이들이 걱정돼서 다시 살기로 하였지만,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보면 미련스럽다할 정도로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과 집 이외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충격도 컸나 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자식 셋을 낳고선 부인이 춤바람이 나서 나갔다는 겁니다. 춤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돈을 자꾸 술술 빼다 쓰고 그러다 보니 집까지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착하고 약하기만 해서 그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도 자식들이 있으니 이혼도 안 하고 '다시 딴 사람을 얻는다' 그래도 애들 엄마를 데리고 사는 게 낫지' 하고는 이때 삼 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그냥 속이 썩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니 이것을 어떡합니까? 그렇게 병이 들어서 차도 못 타고 그냥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인도 나무라지 말고 아무도 나무라지 말고, 신경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몸을 쉬어 가면서 모든 건 주인공한테 맡겨 놔라. 주인공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गत 들어오든 이혼을 하든 그거를 사랑으로 생각지 말고 주인공만이 해결해 주게끔 해라." 이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증오 안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 주노라고 하면서, 그래도 언젠가 당신이 내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때 다시 와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자식 삼남매를 위해서라도 받아주겠노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용돈이 없을 테니까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그때 돈으로 아마 몇 십만 원을 줬나 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가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런 남편을 두고 나온 자기는 이리 가도 눈물이 나고 저리 가도 눈물이 나고, 이때 삼 년밖에 안됐는데 나중에는 그냥 남편 생각만 나서 꿈에도 남편, 그저 그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중에 들어와서 그냥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고 빌면서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그 집을 팔고 가족을 데리고 다시 떠났어요. 떠나서 행복하게, 그 여자는 행복하게 내내 남편을 참, 입금 모시듯 했답니다.

그것이 현실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남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분기가 처릴고 골 죽여버리고 싶은데도, 그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도 참고 선원에 찾아왔는데 스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턱 보냈더니 세상에, 나중에는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깃들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난 스님의 말씀을 믿고 삼 년을 애들로 인해서 장가들지 않고 기다렸노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었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인간에게는 자력이 있습니다. 그게 조질입니다.

그리고 본래 나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산 사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넋을 다들 때때로 말입니다. 그 영혼이 아주 나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넋을 거두니까 애당초부터 나쁜 건 아니었던 거입니다. 불성은 다 똑같습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이 마찰이 되기 때문에 나빠졌던 거죠. 서로 때리고 서로 증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인제는 그런 것을 다 버리겠나이다 하구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릴 때는, 본래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나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결 느끼면서 이것이 한 가닥 무엇인가? 흘러가다 헤어지면 그뿐인 것을 왜 그렇게까지 중요해야 하며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어를 쓰면서 사는 걸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 보세요. 내가 거짓말 조금도 안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렇게도 한다는 거, 공을 던지면 튀어 오르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이 부처님 법 아니고서 뭐가 부처님 법이겠습니까. 마음 심(心) 자 하나로 인해서 팔만대장경이 나왔고, 수많은 말이 나왔고, 이 세상이 나왔습니까? 다 그냥 나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과 부처의 불생불멸

문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앞으로 많이 알고 싶고 또 바른 법을 깨닫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읽다가 스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조심스럽

고정됨 없이 돌아가는 게 진리이니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

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겸손하고, 항상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착이 없이 겸손하고, 무심으로 겸손하고, 무심으로 행하고, 무심으로 말을 하고, 적을 만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뭐가 질 게 있다고 증오하며 원망하며 힘들어 하겠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보다 나아 보여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몸이 사라질 건데, 사랑한다면 다 가져라 하고 줘 버리지, 너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툭툭처럼 연기와 같이 사라질 몸을 가지고 그걸 착을 두고서 거기에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적을 지게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해 보고 싶은 대로 다 해 보소 하고 다 주면 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 개를 두고, 스무 개를 두고, 백 개를 두었는데도 도대체 대책도 없어. 그러나 진짜 조강지처의 마음이란, 아니 조강지처가 아니라라도 좋아요. 그 후에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세를 가진 사람 앞에는 아마도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겁니다. 우주만 법계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줄 겁니다. 이 세상 판사가 법정에 서지 않아도, 법정에까지 설 것도 없습니다. 판단을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위에 두둑두둑 무심으로 걸어가는 행,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도리를 알기에 얼마만큼 피를 흘렸는 줄 아십니까? 나도 사람인데 어찌 사랑을 모르고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마는, 진짜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여러분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도 아,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그 속에는 묻혀 있구나 하는

게 몇 자 질문 올립니다.

조상님 천도하러 절에 갔다가 염주와 <금강경>을 그 절 스님께 받고 나서 저 혼자 <금강경>을 읽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스쳐지나간 생각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 전체가 부처님이 아니실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눈물로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을 때도 계시고, 앉으나 서나 누구나 동물 속에 숨어 있어도, 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원래의 양심이 부처님이신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제 눈을 통해서 주인공은 이 글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 주인공이 부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제 자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문 중에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을 깨달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문득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후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불생불멸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던 다시 살아나신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스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여러분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보고 절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절을 하시나요? 저 형상은 내 몸 형상과 다를 바 없고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도 그 생명도 둘이 아니요, 또 움직여지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작은 물건 하나도 역력히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기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한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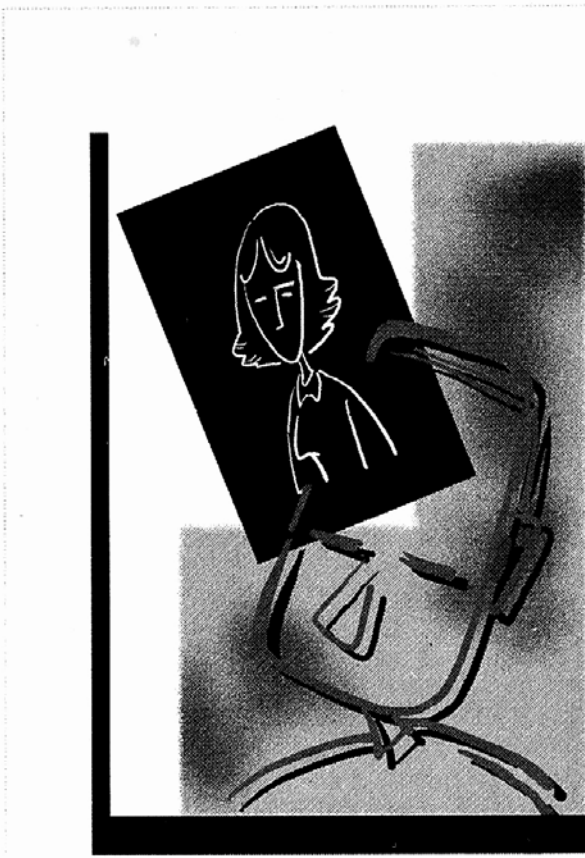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도 나와 둘이 아니기에 내가 있는 이자리에 함께 있어

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 생각으로서의 마음이 없다면 부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너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와도 바로 둘이 아니요, 변소에 가도 둘이 아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그렇게 가깝게 두고, 뒷 속눈썹이 깨끗하니까 깜짝거리며 때 한 찰나에 깜짝거리듯이 부처와 증상은 둘이 아니게 그렇게 같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삼천 년 전의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삼천 년 전만 아니라 몇 천년 전, 몇 만 년 전에도 부처님은 계시고, 지금도 부처님은 계시고, 미래에도 부처님은 영원히 끝간데 없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는 한, 생명이 살아 있는 한, 또 생명이 이렇게 푸르르게 생동 있게 움직여지는 한 아마도 그 뜻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세나 말세가 아니니 운운하지 마는 그것을 떠나서 우린 영원히 이렇게 돌고 돌고, 발 없는 발로 손 없는 손으로, 어디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몸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옷 벗은 거와 같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생명이 살고 있는 한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수없이 나뉘고 수없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가졌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열반을 해야 죽어서 열반은 못합니다. 살아서 우리가 마음을 발견해야 죽어서 무슨 발견할 게 있습니까? 더하고 탈함도 없는데, 기독교 교리로 말할 것 같으면, 살아서 부활해야 죽어서 무슨 부활을 합니까? 살아서 모르는 자가 죽는다고 알까요? 부처님께서는 살아서 부활을 하였고 살아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에 머무른 게 아니라 나뉘는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걸 말씀하셨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도리만 알면, 참 자기란 어떠한 걸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뉘어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단 생각을 하고 단 생각하고 돌아가는 이 나뉘어 의해서, 행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게 윤회가 아니라 나뉘어 가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한 발을 내미신 것도 기독교교리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본래 살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 없으니 살았다 죽었다 말하지 말라 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까? 발이라는 건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진 게 아닙니다.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을 내민 겁니다. 왜? 길은 끊어진 게 없다는 거죠. 이걸 무한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발이라는 건 길고 다니기 때문에 무한의 길을, 영원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발로 나뉘어 있었던 얘기로요. 그러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아, 저건 죽지 않았다 증거'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무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도리를 아시려면 꼭 자기부터 발견을 해야 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도리도 알고...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해서 살아 생전에 천차만별로 부활이 됐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어서 부활을 한 게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부활을 해서 천백 억 화신으로 나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뉘는 자체를 알아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를 알아야 생전에 부활했는지 뭐니,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싸우질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부터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교화에 가면 예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요, 삼합이 한데 합해서 한마음이 다. 한마음을 주체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모든 것을 주체에다가 놓는 것이 바로 예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걸 바로 맡겨 놓고 거기서 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아예 결사적으로 작업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절도 초초마다 부활절이요, 초파일도 일 초 일 초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도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생서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고 그러니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바로 부활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살은 사람이 참 많아요

문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인지 몰라도 젊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해도 한번 살아보면 원하는 일이나 알골 보는 일을 제 스스로가 피하겠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반성해도 잘 안돼요. 식구들은 저보고 너무 완벽하게 굴면 스스로 더 피곤해진다고들 하지만, 전 이제까지 살면서 남에게나 제 스스로에게나 항상 솔직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까지 절 수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되겠죠. 어찌면 좋을까요?

답 마음 공부해 나가시기 위해서 선원에 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높고 깊고 떠나라서 100% 흉남한 것은 아

20면으로 계속

가까운 안목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령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령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인 288쪽
값 6,000원
이시준